

## 노인의 다양한 여가활동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종단분석

김진원<sup>1</sup> · 임구원<sup>2</sup>

<sup>1,2</sup>건양사이버대학교 교수

### Longitudinal Analysis of the Effects of Various Leisure Activities of the Elderly on Quality of Life

Jin-Won, Kim<sup>1</sup> · Koo-won, Lim<sup>2</sup>

<sup>1,2</sup>Konyang Cyber University

#### Abstract

The purpose of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s of Various leisure activities in later life on the quality of life over time. Using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ing(KLoS), longitudinal data on older adults aged 60 to 80 in 2008, and 70 to 90 in 2018 were analyzed as potential growth models. The final analysis target was 3,071 older adults who responded to follow-up from 2008 to 2018.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the initial value of Various leisure activities among older adults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the initial quality of life. This means that the more Various leisure activities, the higher the quality of life among older adults. Various leisure activities in later life can be interpreted as an influencing factor that can increase or decrease the slope of quality of life more steeply. In order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for older adults, policy implications and practical measures to continuously support Various leisure activities policies and programs were discussed.

**Key words :** Longitudinal analysis, latent growth model, Leisure activities, Quality of life, elderly, KLoSA

주요어 : 노인, 여가활동, 삶의 질, 다변량잠재성장모형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Lim, Koo-Won

Konyang Cyber University, 158, Gwanje-dong-ro, Seo-gu, Daejeon

E-mail: limkw9@kycu.ac.kr

Received: October, 30, 2020 Revised: December, 2, 2020 Accepted: December, 17, 2020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 노인 인구는 2018년 전체인구 대비 14%로 고령사회에 진입하였으며 2030년에 25.0%, 2060년에는 43.9%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통계청, 2019). 고령사회로 진행되면서 노인 인구의 증가에 따른 노인들의 수명 연장과 삶의 질에 대한 욕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김진원, 2020; 조경옥, 이동기, 이중섭, 2011).

또한 노년기 삶의 질은 노년학에서 노년기 적응, 성공적 노화에 관한 연구에서 생활 만족도를 판단하는 대표적인 지표로 활용되며(김숙경, 2004; 최용민, 이상주, 2003), 노인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변인이다(정순돌, 2003).

노년기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으로 첫째 신체적 기능의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삶의 질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권오균, 2008; 김미령, 2006; 민경진, 2007), 여가활동이 노인에게 생리적으로 바람직한 영향을 미치면서 삶의 질을 향상한다(Tinsley & Colbs, 1982)는 신체기능 수준 연구가 있고, 둘째 심리적 특성에 따라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로 우울감에 관한 연구(김광옥, 2020; 오창석, 2012; 임승희, 노승현, 2011), 자아통합감이 노인의 삶의 질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이금룡, 박상욱, 유은경, 2013; 최현식, 하정철, 2012)가 있다. 셋째 사회활동 참여 및 사회관계와 관련하여 노인의 적극적이고 생산적인 여가활동이 개인적으로 신체 및 정신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하고(김진원, 이금룡, 2020; 허준수, 2002; Gabriel & Bowling, 2004), 사회적으로는 노인에게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확립시킬 수 있다는 연구가 있다(신동관, 한영호, 2011). 특히 노인의 여가 참여 활동이 건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노인의 인적자본을 활용하여, 사회적 역할을 원만히 수행하며 삶의 질을 향상한다(김

희경, 이현주, 박순미, 2010; 이현지, 2014). 이는 중년기에서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지속해서 여가활동에 참여한 사람이 간헐적으로 여가활동에 참여한 사람보다 삶의 질에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인다고 주장하였다(Decarlo, 1974). 기존의 다양한 선행연구를 통하여 노년기 삶의 질을 향상하는 요인으로 여가활동이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노인의 여가는 필수적인 생리적 시간, 경제적 활동시간 이외의 남은 시간을 여가로 보는 청장년층의 개념과는 차이가 있다(김진원, 2020; 이금룡 외, 2009). 노인은 시간적 여유가 일하고 남은 시간이 아니라 ‘생활의 전부’가 되어 버리기 때문이다(김익기 외, 1999). 노인의 여가가 중요한 이유는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자녀들이 독립한 이후의 빈둥지(empty nest) 시기가 이전에 비해 길어지면서 경제활동이 끝나는 은퇴 이후 일상생활은 ‘여가투성이’의 연장이라고 볼 수 있다(김태현, 김양호, 임선영, 2011). 이러한 여가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노년기 적응과 삶의 질 전반에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볼 수 있다.

2018년 국민여가활동조사에 따르면 여가활동 개수도 60대 이상이 가장 적은 참여를 보였고, 참여유형 역시 60대 이상의 노인들은 TV시청 같은 소극적 여가에 많이 참여하고 있었으며, 여가활동 인식도 60대 이상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내었다(문화체육관광부, 2019). 노인실태 조사(2017)에 따르면 노인의 TV 시청 및 라디오 청취가 99.3%, 취미오락활동이 50.5%, 사회활동에 참여 34.9%, 산책 27.5%, 스포츠 참여활동 16.6%로 나타났으며, 평생교육 참여 12.9%, 자원봉사 참여는 3.9%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 2018). 정리해 보면 60세 이상 노인들의 여가실태는 다른 연령층에 비하여 참여율도 저조하고 대부분 소극적으로 여가에 참여하며, 여가활동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진원,

2020). 노인의 여가활동은 노년기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참여율이 낮다는 것은 노년기 여가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정책과 다양한 실천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노인의 사회참여와 여가활동 활성화 정책으로 제1차 국민 여가 활성화 기본계획,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그리고 문화예술교육 5개년 종합계획이 실시되고 있다. 또한 제4차 평생교육 진흥 기본계획에서 고령자 맞춤형 학습지원 정책을 마련하면서, 노인의 특성을 고려한 평생교육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김진원, 2020). 이러한 정부의 노력은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의 노후가 길어지는 가운데 ‘성공적 노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여가’가 개인의 삶에서 중요한 화두가 되는 동시에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로 주목받고 있다(강은나, 2016).

이에 따라 노년기 여가활동은 무료한 시간을 보내기 위한 개인적이고 비활동적인 경향이 두드러지지만 반면에 다양한 여가활동에 참여하는 노인들도 점점 증가추세를 보인다(김진원, 2020). 많은 학자는 인구 고령화로 인한 노인 여가활동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여가 유형의 다양성과 그 효과에 대하여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즉 다양한 여가활동을 통하여 신체적 건강유지와 심리적 안정과 만족한 생활로 이어진다면 노화를 어느 정도 막거나 늦출 수 있다고 보았다(주민경, 송선희, 2012).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는 노인의 여가활동과 삶의 질의 인과관계, 여가활동 유형, 여가 만족과 여가 프로그램 등 노인의 여가활동과 삶의 질에 대한 주제들이 다루어져 왔다(김진원, 2020). 노인 여가활동은 생애에 걸쳐 지속성과 변화라는 상반된 패턴의 궤적(trajjectory)을 나타내고 있다(Hooyman & Kiyak, 2005).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의 여가활동에 관한 대부분 연구는 특정 시점에만 분석된 횡단연구로 이루어져 온 반면에, 종단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김진원, 이금룡, 2020).

본 연구에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다양한 여가활동과 삶의 질의 변화를 알아보고, 검증하기 위해 종단적 자료에 기초한 변화수준의 관계를 잠재성장모형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잠재성장모형(Latent Growth Modeling)은 구조방정식 모형을 기초로 반복 측정된 자료를 위해 개발된 분석 방법으로, 변수의 시간적 변화를 간명하게 설명할 수 있는 함수로 정의함으로써 변화뿐만 아니라 그 변화의 개인차에 대한 유의미성을 검증하고, 개인차에 작·간접적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해 준다(Duncan, 1999; Meredith & Tisak, 1990).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의 다양한 여가활동이 시간에 따라 삶의 질에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모색해보며,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종단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또한 노년기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여가활동에 대한 이론적, 정책적, 실천적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 2. 연구문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잠재성장 모형을 통하여 노인들의 다양한 여가활동과 삶의 질이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가?
2. 시간의 흐름에 따라 노인들의 다양한 여가활동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가?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는 한국고용정보원의 한국고령화패널(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ing)의 2차(2008년)~7차(2018년)로 총 10년간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한국고령화패널은 1차(2006년)를 시작으로 제주도를 제외한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시작된 데이터이다. 패널데이터는 동일 응답자를 시간에 걸쳐 추적하여 데이터를 얻는

것으로 다차원적 분석이 가능하다. 고령화연구패널조사의 조사방법은 컴퓨터를 이용한 대인면접(CAPI)으로 진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2차(2008년) 기준 60세 이상 80세 이하 노인을 대상으로 7차(2018년) 70세 이상 90세 이하 노인들의 다양한 여가활동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잠재성장모형 분석을 하였다. 2차(2008년) 4,612명 평균나이 69.07세, 3차(2010년) 4,182명 평균나이 70.89세, 4차(2012년) 3,928명 평균나이 72.74세, 5차(2014년) 3,665명 평균나이 74.50세, 6차(2016년) 3,412명 평균나이 76.22세, 7차(2018년) 3,071명 평균나이 77.9세를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최종 분석 대상자는 2008년부터 2018년까지의 추적조사에 응답한 노인 3,071명이다.

한국고령화 패널을 분석자료로 사용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KLoSA는 2006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최근 2018년 자료를 제공하고 있고, 중단연구를 하는데 적합한 데이터이기 때문이다. 특히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변수들이 있고 분석하기에 충분한 시점을 가지고 있음으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 적합하기 때문이다.

연구 참여자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에 대해 살펴보면, 성별로는 여성이 1,799명(58.6%) 남성이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변수명   |            | N     | %      |
|-------|------------|-------|--------|
| 성별    | 여성         | 1,799 | 58.6   |
|       | 남성         | 1,272 | 41.4   |
| 배우자유무 | 배우자 없음     | 1,097 | 35.7   |
|       | 배우자 있음     | 1,974 | 64.3   |
| 종교    | 종교 없음      | 1,907 | 62.1   |
|       | 종교 있음      | 1,164 | 37.9   |
| 교육수준  | 초등학교 졸업 이하 | 1,867 | 60.8   |
|       | 중학교 졸업     | 453   | 14.8   |
|       | 고등학교 졸업    | 538   | 17.5   |
|       | 대학교 졸업 이상  | 213   | 6.9    |
| 평균연령  | 2008년(2차)  | 4,612 | 69.07세 |
|       | 2010년(3차)  | 4,182 | 70.89세 |
|       | 2012년(4차)  | 3,928 | 72.74세 |
|       | 2014년(5차)  | 3,665 | 74.50세 |
|       | 2016년(6차)  | 3,411 | 76.22세 |
|       | 2018년(7차)  | 3,071 | 77.90세 |

1,272명(41.4%)으로 나타났다. 배우자 유무에 대하여 살펴보면, 배우자 없음이 1,097명(35.7%) 배우자 있음이 1,974명(64.3%)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의 경우에는 초등학교 졸업 이하가 1,867명(60.8%)으로 가장 많았으며, 고등학교 졸업이 538명(17.5%), 중학교 졸업 453명(14.8%), 대학교 졸업 이상 213명(6.9%)으로 조사되었다.

## 2. 연구도구

### 1) 다양한 여가활동

본 연구에서 사용된 다양한 여가활동은 ‘국민 여가활동조사’의 여가 분류를 바탕으로 ‘취미 및 오락 활동’, ‘여행 및 관광 활동’, ‘문화 및 스포츠관람 활동’, ‘평생교육 활동’, ‘자원봉사 활동’으로 크게 5가지로 분류하였다. 여가 유형에 따른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노인은 1, 참여하지 않은 노인들은 0으로 코딩하여 합산하여 사용하였다. 총 점수는 0~5까지로 점수가 높을수록 다양한 여가활동을 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 2) 삶의 질

종속변수로 설정된 삶의 질에 관한 조작적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정서적·인지적 평가를 포함하는 주관적 만족감의 1개 변수만 사용하였다. 삶의 질에 대하여 신뢰성 있는 평가 방법이며, 삶 전반에 대하여 응답자가 느끼고 있는 주관적인 만족도이다. 이는 전국적 실태조사나 패널조사를 보았을 때 개인들이 누리는 삶의 질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을 받았을 때 응답자가 누리는 전반적 삶에 대하여 느끼는 만족도에 응답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Cowper, Morey & Bearon, 1991). 문항의 내용은 ‘전반적인 삶의 질’로 이루어져 있으며, 0점(불만족)부터 최고 100점(만족)까지 응답할 수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전반적 삶의 질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삶의 질 신뢰도(Cronbach's  $\alpha$ )는 .81로 나타났다.

### 3) 통제변수

본 연구는 종단연구로 시간에 독립적 성격을 띠는 몇 가지 변수를 통제변수로 투입하여 잠재성장모형 중 조건적 모형(conditional model)을 분석하였다.

성별은 여성은 0, 남성은 1로 재 코딩 하였다. 배우자 유무에 관한 문항은 혼인상태 문항을 참고하였으며, 별거, 이혼, 사별, 결혼한 적 없음은 0으로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1로 코딩하였다. 종교 유무에 대한 문항은 ‘종교 없음’이 0, ‘개신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 ‘기타’의 모든 값은 ‘종교 있음’으로 1로 코딩하였다. 학력 수준에 관한 문항에 관하여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졸업 이하’는 1, ‘중학교 졸업’2, ‘고등학교 졸업’3, ‘대학교 졸업 이상’은 4로 코딩하였다. 값이 증가할수록 학력 수준이 높을 것을 의미한다.

### 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다양한 여가활동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종단적으로 분석하고자 잠재성장모형(Latent Growth Model)을 사용하였다. 종단자료는 코호트 자료(Cohort Date)와 패널 자료(Panel Data)가 있으나 잠재성장모형은 패널 자료에 대부분 사용된다(김계수, 2017). 잠재성장모형은 구조방정식을 활용하여 종단자료를 시간에 따른 변화에 대하여 분석하는 대표적인 연구 방법의 하나이다(김계수, 2017; 김주환, 김민규, 홍세희, 2009).

잠재성장모형은 반복적으로 측정된 자료를 가지고 변수의 변화를 시간 변수나 공 변인의 함수로 표현한다(Kaplan, 2009; Kline, 2005). 변수의 시간에 따른 변화를 성장궤적(growth trajectory)이라 하는데 잠재성장모형의 주요한 목적은 성장궤적의 절편(intercept)과 기울기(slope)를 분석하는 것이다(김계수, 2017). 본 연구에서는 집단의 평균뿐만 아니라 개인의 변화와 개인차에 영향을 주는 요인, 변수와 변수

간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분석 방법이다(Duncan & Duncan, 2004). 잠재성장모형을 분석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최소한 세 번 이상의 측정된 연속변수의 종속변수가 있어야 하고 시간에 걸쳐 같은 단위를 갖는 변수가 있어야 하며, 각 측정 시점별로 모든 사례의 자료가 동시에 수집되어야 한다(김계수, 송태민, 2012; Kline, 2005). 또한 잠재성장모형을 이용하면 변인의 변화를 설명하는 간명한 함수를 추정할 수 있다(홍세희, 유숙경, 2004).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여가활동과 삶의 질에 관한 두 변인의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와 관련성을 살펴보고자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여가활동이 독립 변수이며 통제변수를 사용한 조건적 모형 분석 단계를 거쳐 가장 적절한 모형을 도출하였다. 조건 모형 분석단계로 노인들의 다양한 여가활동에 따른 삶의 질을 무변화 모델과 선형변화 모델을 비교하여 변화궤적을 파악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인구 사회학적 변인들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 분석, 기술 통계분석, 변인 간의 관계성을 알아보기 위한 상관관계 분석을 하였다. 분석은 IBM SPSS 21와 AMOSS 21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잠재성장모형 분석은 구조방정식의 분석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chi^2$  검증, TLI(Tucker-Lewis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를 사용하였다. TLI와 CFI의 경우 .95 이상일 때, RMSEA의 경우 .05이하 일 때 좋은 적합도로 해석한다(Hu & Bentler, 1999). 본 연구에서는 결측치가 있으므로 FIML(Full 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를 이용하였다(Arbuckle, 1996).

표 2.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코딩방법

| 변수명      | 정의 및 코딩방법  |
|----------|--|
| 성별       | ①여성 ①남성  |
| 동거형태     | ①배우자없음 ①배우자있음  |
| 교육수준     | ①초등학교 졸업이하 ②중학교 졸업 ③고등학교 졸업 ④대학교 졸업이상  |
| 종교       | ①종교없음 ①종교있음  |
| 다양한 여가활동 | 1.여행,관광,나들이경험유무(0,1)<br>2.영화,공연,음악회,전시회,스포츠경기 관람유무(0,1)<br>3.취미 및 오락관련 모임 참여유무(0,1)<br>4.능력개발 교육프로그램 참여유무(0,1)<br>5.자원봉사 참여유무(0,1) |
| 삶의질      | 전반적 삶의 질 (0~100)   |

### III. 연구결과

#### 1. 상관관계분석

잠재성장모형 검증에 앞서 연구모형에 사용된 측정변수 간의 상관관계, 평균 및 표준편차와 왜도, 첨도를 산출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주요 변수들의 상관관계는 대부분 정적인 상관관계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의 다양한 여가활동에 따른 삶의 질과의 상관계수는  $r=.149 \sim .287$  ( $p<.01$ )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정규성 검정을 위한 왜도의 절댓값 범위는  $-.604 \sim 1.77$ 로  $\pm 2$ 를 넘지 않았고, 첨도의 절댓값 범위는  $-1.880 \sim 4.504$ 로  $\pm 7$ 을 넘지 않았기 때문에 정규성 분포를 가정할 수 있다.

#### 2. 변인별 모형비교

노인의 다양한 여가활동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알아보기 위하여 각 변인의 변화합수를 추정할 수 있는 잠재성장 모형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2차~7차 시점에서 평균의 변화가 일관성 있게 증가하거나 감소할 때는 선형변화 모형을 채택할

것이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무변화 모형을 채택하게 될 것이다.

표 3. 주요변인의 무변화모형과 선형변화 모형 적합도

|      | 변화모형 | $\chi^2$ | df | TLI  | CFI  | RMSEA |
|------|------|----------|----|------|------|-------|
| 여가활동 | 무변화  | 1209.692 | 19 | .880 | .891 | .085  |
| 다양성  | 선형   | 234.742  | 16 | .974 | .980 | .040  |
| 삶의질  | 무변화  | 714.686  | 19 | .943 | .949 | .065  |
|      | 선형   | 337.172  | 16 | .969 | .976 | .048  |

각 요인의 변화모형을 결정하기 위하여 무변화 모형, 선형변화 모형의 적합도를 비교하여 검토하였다.

다양한 여가활동의 경우 무변화 모형( $\chi^2=1209.692$ ,  $df=19$ ,  $TLI=.880$ ,  $CFI=.891$ ,  $RMSEA=.085$ )의 적합도를 보였으며, 선형변화 모형 ( $\chi^2=234.742$ ,  $df=16$ ,  $TLI=.974$ ,  $CFI=.980$ ,  $RMSEA=.040$ )로 무변화 모형보다 선형변화 모형이 더 좋은 적합도를 나타내었다. 즉 노인들의 다양한 여가활동은 시간에 따라 선형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삶의 질은 무변화 모형( $\chi^2=714.686$ ,  $df=19$ ,  $TLI=.943$ ,  $CFI=.949$ ,  $RMSEA=.065$ )의 적합도를 보였으며, 선형변화 모형은 ( $\chi^2=337.172$ ,  $df=16$ ,  $TLI=.969$ ,  $CFI=.976$ ,  $RMSEA=.048$ )로 무변화 모형보다 선형변화 모형이 더 좋은 적합도를 나타내었다. 즉 노인들의 삶의 질이 시간에 따라 선형으로 변화하므로 일변량 잠재성장모형이 채택되었다.

선형 변화모형에서 각 추정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다양한 여가활동 평균의 초기치와 변화율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노인의 다양한 여가활동 측정 초기의 값이 변화율에 영향을 미친다는 뜻으로 즉 초기에 측정된 여가활동의 개수 평균값은 .510 이었고 2년이 지남에 따라 .029씩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초기치와 증가율의 변량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다양한 여가활동은 노인들 개인 차이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초기치와 변화율 사이의

표 4. 측정변수들의 상관관계 및 기술통계량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
| 1. 성별       | 1       |         |        |        |        |        |        |        |        |        |        |         |        |        |        |        |
| 2. 배우자유무    | .428**  | 1       |        |        |        |        |        |        |        |        |        |         |        |        |        |        |
| 3. 종교유무     | -.117** | -.052** | 1      |        |        |        |        |        |        |        |        |         |        |        |        |        |
| 4. 학력수준     | .397**  | .256**  | .082** | 1      |        |        |        |        |        |        |        |         |        |        |        |        |
| 5. 2차년삶의질   | .139**  | .197**  | .039*  | .226** | 1      |        |        |        |        |        |        |         |        |        |        |        |
| 6. 3차년삶의질   | .128**  | .194**  | .052** | .204** | .490** | 1      |        |        |        |        |        |         |        |        |        |        |
| 7. 4차년삶의질   | .141**  | .168**  | .035   | .221** | .479** | .549** | 1      |        |        |        |        |         |        |        |        |        |
| 8. 5차년삶의질   | .112**  | .163**  | .038*  | .206** | .433** | .445** | .502** | 1      |        |        |        |         |        |        |        |        |
| 9. 6차년삶의질   | .095**  | .151**  | .032   | .180** | .394** | .412** | .453** | .558** | 1      |        |        |         |        |        |        |        |
| 10. 7차년삶의질  | .099**  | .138**  | .028   | .201** | .334** | .372** | .402** | .471** | .481** | 1      |        |         |        |        |        |        |
| 11. 2차년여가활동 | .041*   | .095**  | .057** | .232** | .270** | .203** | .252** | .214** | .207** | .179** | 1      |         |        |        |        |        |
| 12. 3차년여가활동 | .024    | .085**  | .047** | .206** | .220** | .285** | .275** | .248** | .193** | .190** | .403** | 1       |        |        |        |        |
| 13. 4차년여가활동 | .018    | .063**  | .068** | .209** | .184** | .224** | .287** | .200** | .171** | .171** | .377** | .460**  | 1      |        |        |        |
| 14. 5차년여가활동 | .047**  | .150**  | .082** | .280** | .185** | .203** | .252** | .224** | .175** | .188** | .313** | .388**  | .437** | 1      |        |        |
| 15. 6차년여가활동 | .037*   | .101**  | .065** | .255** | .176** | .180** | .229** | .200** | .237** | .210** | .263** | .321**  | .369** | .474** | 1      |        |
| 16. 7차년여가활동 | .040*   | .114**  | .091** | .294** | .165** | .167** | .181** | .149** | .151** | .222** | .238** | .272**  | .298** | .399** | .465** | 1      |
| M           | .41     | .64     | .38    | 1.71   | 58.41  | 58.20  | 57.03  | 57.10  | 59.59  | 59.10  | .4621  | .42727  | .4263  | .4977  | .5026  | .5150  |
| SD          | .493    | .479    | .485   | .987   | 19.449 | 18.800 | 18.083 | 17.882 | 16.719 | 17.516 | .66975 | .632700 | .64758 | .72301 | .72321 | .75789 |
| 왜도          | .349    | -.596   | .499   | 1.048  | -.478  | -.604  | -.596  | -.593  | -.524  | -.579  | 1.688  | 1.650   | 1.770  | 1.651  | 1.596  | 1.621  |
| 첨도          | -1.880  | -1.646  | -1.752 | -.296  | -.034  | .165   | .266   | .006   | .132   | .053   | 4.123  | 3.944   | 4.504  | 3.472  | 3.081  | 2.940  |

\*\* $p < .01$

공 변량이 부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노인들이 초기에 다양한 여가활동을 할수록 마지막 시점에 왔을 때 다양한 여가활동 증가 폭이 크지 않다는 것으로 상대적으로 초기값이 높아 기울기가 완만해진다는 것으로 다양한 여가활동이 변화가 적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2~7차년도 선형변화모형의 삶의 질의 궤적에 관한 추정치를 살펴보면 삶의 질 초기치 평균은 59.651( $p < .001$ )이고, 변화율은 0.093 ( $p < .05$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조금씩 증가하는 변화를 보이고 있어, 개인 간 차이가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양한 여가활동과 삶의 질에 대하여 일차함수모형으로 설정하고 개인

표 5. 주요변인의 선형변화에 대한 결과

|      | 평균        |         | 분산         |          | 공변량        |
|------|-----------|---------|------------|----------|------------|
|      | 초기치       | 변화율     | 초기치        | 변화율      |            |
| 여가활동 | .510***   | .029*** | .257***    | .013***  | -.016***   |
| 삶의질  | 59.651*** | 0.093*  | 196.662*** | 4.537*** | -14.282*** |

\* $p < .05$ , \*\* $p < .01$  \*\*\* $p < .001$

차를 알아보기 위한 통제변수를 투입하였다. 최종 연구 모형은 <그림 1>과 같다.

일반적으로 동일한 간격을 두고 측정된 변수에 대하여는 각 시점에 대한 가중치를 0부터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초기치에서는 2·3·4·5·6·7 차 년도의 다양한 여가활동과 삶의 질 계수는 모두 1로 고정하였고, 일차변화율에서는 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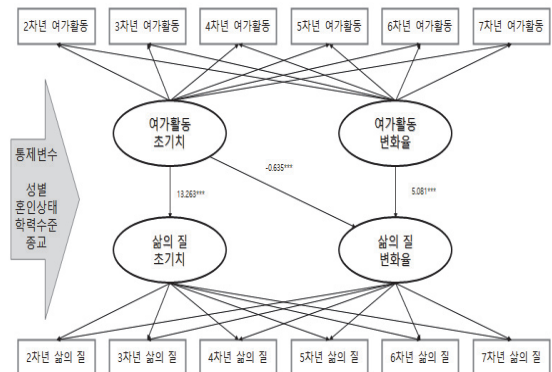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를 0, 1, 2, 3, 4, 5로 고정하였다. 통제변수인 성별, 연령, 혼인상태, 종교 유무간에도 공분산을 설정하였다.

### 3. 다양한 여가활동의 삶의질 관계에 대한 잠재성장모형 분석

앞선 분석 결과에 따라 최종적으로 선택된 일차함수모형을 설명하기 위하여 변수들을 투입한 연구 모형을 분석하였다. 연구모형의 적합도는 <표 6>에 제시하였다.

잠재성장모형의 검증결과 모형의 적합도는 <표 6>과 같이  $\chi^2=900.438$ ,  $df=97$ ,  $TLI=.964$ ,  $CFI=.975$ ,  $RMSEA=.031$ 로 모형이 적합함을 알 수 있다.

표 6. 연구 모형 적합도

| $\chi^2$ | df | TLI  | CFI  | RMSEA<br>(90%신뢰구간)  |
|----------|----|------|------|---------------------|
| 900.438  | 97 | .964 | .975 | .031<br>(.029-.033) |

모형에서 추정된 경로계수들은 <표 7>에 제시되어 있다.

첫째, 다양한 여가활동 통제변수의 영향을 살펴보면 성별이 여가활동 초기치( $\beta=-.177$ ,  $p<.001$ ), 여가활동 변화율( $\beta=-.028$ ,  $p<.001$ )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측정 초기시점에 여성이 남성보다 다양한 여가활동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 노인이 남성 노인보다 다양한 여가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혼인상태는 여가활동 초기치( $\beta=.148$ ,  $p<.001$ ), 여가활동 변화율( $\beta=.022$ ,  $p<.001$ )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배우자가 있는 노인의 경우 측정 초기시점에 다양한 여가활동을 많이 하고 있었으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다양한 여가활동이 증가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표 7. 연구모형의 경로계수

|          |            | $\beta$ | B      | S.E   | t          |
|----------|------------|---------|--------|-------|------------|
| 성별       | → 여가활동 초기치 | -0.177  | -0.173 | 0.015 | -12.006*** |
| 성별       | → 여가활동 변화율 | -0.028  | -0.124 | 0.005 | -5.968***  |
| 혼인상태     | → 여가활동 초기치 | 0.148   | 0.122  | 0.017 | 8.673***   |
| 혼인상태     | → 여가활동 변화율 | 0.022   | 0.085  | 0.005 | 4.215***   |
| 학력       | → 여가활동 초기치 | 0.193   | 0.403  | 0.007 | 28.523***  |
| 학력       | → 여가활동 변화율 | 0.02    | 0.196  | 0.002 | 9.636***   |
| 종교       | → 여가활동 초기치 | 0.112   | 0.11   | 0.014 | 8.227***   |
| 종교       | → 여가활동 변화율 | -0.033  | -0.147 | 0.004 | -7.656***  |
| 성별       | → 삶의질 초기치  | 1.062   | 0.038  | 0.391 | 2.718**    |
| 성별       | → 삶의질 변화율  | -0.124  | -0.026 | 0.109 | -1.129     |
| 혼인상태     | → 삶의질 초기치  | 5.301   | 0.159  | 0.445 | 11.922***  |
| 혼인상태     | → 삶의질 변화율  | -0.146  | -0.026 | 0.124 | -1.18      |
| 학력       | → 삶의질 초기치  | 1.225   | 0.093  | 0.199 | 6.147***   |
| 학력       | → 삶의질 변화율  | -0.054  | -0.025 | 0.056 | -0.964     |
| 종교       | → 삶의질 초기치  | 0.108   | 0.039  | 0.505 | 2.193*     |
| 종교       | → 삶의질 변화율  | -0.164  | -0.049 | 0.141 | -1.158     |
| 여가활동 초기치 | → 삶의질 초기치  | 13.263  | 0.482  | 0.505 | 26.265***  |
| 여가활동 초기치 | → 삶의질 변화율  | -0.635  | -0.139 | 0.135 | -4.712***  |
| 여가활동 변화율 | → 삶의질 변화율  | 5.081   | 0.242  | 0.571 | 8.89***    |

\* $p<.05$ , \*\* $p<.01$  \*\*\* $p<.001$

다. 교육수준은 여가활동 초기치( $\beta=.193$ ,  $p<.001$ )와 변화율( $\beta=.02$ ,  $p<.001$ )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력이 높을수록 다양한 여가활동을 하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 유무는 여가활동 초기치( $\beta=.112$ ,  $p<.001$ )와 변화율( $\beta=-.033$ ,  $p<.001$ )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종교가 있을수록 다양한 여가활동을 하며, 변화율에 부(-)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의 감소가 아닌 증가세를 둔화시킨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노인의 삶의 질의 통제변수의 영향을 살펴보면 성별이 삶의 질 초기치( $\beta=1.062$ ,  $p<.001$ ), 삶의 질 변화율( $\beta=-.124$ ,  $p<.001$ )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측정 초기시점에 남성이 여성보다 삶의 질이 높았으며, 삶의 질 변화율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혼인상태는 삶의 질 초기치( $\beta=5.301$ ,  $p<.001$ )에만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배우자가 있는 노인의 경우 측정 초기시점에 삶의 질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은 여가활동 초기치( $\beta=1.225$ ,  $p<.001$ )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력이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 유무는 삶의 질 초기치( $\beta=.108$ ,  $p<.05$ )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종교가 있을수록 삶의 질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다양한 여가활동 초기치는 삶의 질 초기치( $\beta=13.263$ ,  $p<.001$ )에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측정 초기에 다양한 여가활동을 하는 노인이 삶의 질 초기값도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양한 여가활동 초기치가 삶의 질 변화율( $\beta=-0.635$ ,  $p<.001$ )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초기의 다양한 여가활동이 삶의 질의 증가나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노인의 다양한 여가활동 변화율이 삶의 질 변화율에( $\beta=5.081$ ,  $p<.001$ )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가활동을 다양하게 할수록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삶의 질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 IV. 논의 및 제언

본 연구는 한국고령화패널(KLoSA) 데이터를 활용하여 노인의 다양한 여가활동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종단적으로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다.

첫째, 2차(2008년)부터 7차(2018년)까지 10년간의 연구대상자의 삶의 질은 조금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활동이론에 따르면 노인의 사회활동이나 여가활동에 참여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심리적 만족도와 생활 만족도가 높아진다(이영균, 최승인, 2016; Havighurst, 1961). 따라서 노년기 삶의 질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노인들에게 다양한 여가활동이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이론적으로 확인하였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여가활동의 초기값이 삶의 질 초기값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결과는 다양한 여가활동을 하는 노인이 삶의 질이 높다는 연구(이형룡, 이해영, 이금룡, 2008; 최명옥, 조순점, 2013; 한상미, 2011)를 뒷받침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 셋째, 잠재성장모형에서 중요한 결과인 다양한 여가활동의 변화율이 삶의 질 변화율에도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다양한 여가활동을 하는 노인들이 삶의 질 역시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긍정적으로 변화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사람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환경적응이나 역할을 익숙한 형태로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Hooyman & Kiyak, 2011)를 지지하게 된다. 즉 노인들은 성인기를 통하여 형성한 비슷한 역할을 수행하려 하며, 삶의 만족도는 자신의 인생경험과 비슷한 활동을 얼마나 유지하는가에 따라 얻어진다(Neugarten, Havighurst & Tobin, 1968)는 연속이론을 확인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노년기 이전의 중장년기에 다양한 여가활동을 시작하여 여가활동의 초기값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다.

넷째, 통제변수의 영향을 살펴보면 여가활동에서 여성 노인일수록, 배우자가 있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종교가 있을수록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 노인들이 여가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선행연구인 여성 노인의 여가활동이 남성 노인보다 높다는 결과와 일치한다(김미령, 2008; 김진원, 이금룡, 2020; 전영갑, 이재근, 2006). 배우자가 있을수록 여가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한다(김미혜, 남순현, 2014)는 결과를 지지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가활동에 및 사회활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배우자가 중요한데 유배우자 노인의 85.0%는 배우자에게 정서적 지원을 받고 86.2%는 정서적 지원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나 상호 간 활발한 교류를 하고 있다는 연구결과를 지지하고 있다(정경희, 2018). 교육수준이 여가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여가활동에 적극적인 참여를 한다(김춘옥, 2015; 신동관, 한영호, 2011; 배종욱, 2010)는 연구결과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삶의 질에 관한 통제변수의 영향은 성별, 배우자 유무, 종교 유무, 교육수준에 따라 삶의 질 초기치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여성 노인보다 남성 노인이 삶의 질을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여성 노인이 남성 노인보다 삶의 질이 높다는 다수의 연구와(박기남, 2004; 허준수, 2004; Atchley, 1975)는 다른 결과를 보인 반면에 남성 노인이 여성 노인보다 삶의 질을 높게 인식한다(고보선, 유용식, 2002; 김진원, 2020; Atchley, 1975)는 연구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 유무에 대하여는 배우자가 있는 노인이 삶의 질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는 배우자가 있는 노인이 삶의 질이 높다는 다수의 연구(김미혜, 2005; 임광빈, 2018; 주경희, 2011)를 뒷받침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삶의

질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다는 (김자영, 2019; 주경희, 2011; 허준수, 2004; Havinghurst, 1963) 연구와 일치한다. 또한 종교에 대하여 노인들이 종교가 있는 것이 삶의 질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김미숙, 박민정, 2000; 한내창, 2002; 임광빈, 2018)는 연구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가활동에 및 사회활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배우자가 중요한데 유배우자 노인의 85.0%는 배우자에게 정서적 지원을 받고 86.2%는 정서적 지원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나 상호 간 활발한 교류를 하고 있다는 연구결과를 지지하고 있다(정경희, 2018). 교육수준이 여가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여가활동에 적극적인 참여를 한다(김춘옥, 2015; 신동관, 한영호, 2011; 배종욱, 2010)는 연구결과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기존의 연구에서는 노인의 여가활동과 삶의 질이 횡단연구로 분석이 되어왔으며, 노인의 삶의 질에 관한 소수의 종단연구에서는 인구 사회학적 변인, 건강상태, 우울, 치매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본 연구는 다양한 여가활동과 삶의 질에 대한 인과관계와 시간에 흐름에 따라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종단적인 방법으로 확인하였는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결론적으로, 노인의 삶의 질에 관한 이론적 연구(Atchley, 1988; Havinghurst, 1961)에 따르면 활동이론(activity theory)과 연속이론(continuity theory)이 노화로 인한 사회적 분리를 불가피한 현상으로 접근하기 보다 여가활동을 통해 노화로 인한 다양한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문제에 대한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다고 보았다.

위와 같은 결과를 통하여 정책적, 실천적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4차 산업혁명의 흐름에 따라 노인의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 통제 변인으로 사용된 교육수준은 여가활동과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변인이다. 2017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교육수준은 중고등학교 이상의 비율이 41.7%로 2008년 35.9%보다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무학 및 글자를 모르는 노인은 2017년 6.6%로 2008년 23.6%보다 점점 낮아지고 있다(보건복지부, 2018). 따라서 미래 예비노인들의 교육수준은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이들의 여가활동 참여에 대한 욕구는 더 커질 것으로 예측되므로 이들을 위한 여가활동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종단연구의 장점으로 다음 세대를 예측하거나 이전 세대에 개입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금의 중장년 시기인 베이비붐 세대의 여가활동에 대해 대비를 해야 하며, 그들의 여가 활성화 방안을 위하여 정책적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김진원, 이금룡, 2020). 노년기 여가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노년기 이전에 여가활동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다양한 여가활동 참여의 기회제공을 통해 적극적인 여가활동을 시작하고 지속함으로써 여가경력(leisure career)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이금룡, 2016).

둘째, 다양한 여가활동을 하는 노인들의 삶의 질이 높게 나타났으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지속해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가의 지속성과 다양성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여가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많은 노인이 여가활동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김진원, 2020). 노인들은 여가생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다양한 여가시설 이용이 91.2%, 질 좋은 여가프로그램을 개발 및 보급은 89.7%가 필요하다고 응답 하였다(문화체육관광부, 2019). 이에 따라 노인들의 물리적 접근이 가능한 지역사회 기반 여가시설의 활성화와 다양한 프로그램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 있어서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의 여가활동과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연령, 여가비용, 소득수준 등을 다루지 못하였다. 이는 종단연구의 한계로 시간에 독립적이지 않은 연령과 여가비용, 소득을 구체적으로 다루지 못한 점이다.

둘째, 노인의 삶의 질에 관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른 모형 변화에서 2차 함수를 적용하지 못하였다. 이는 2차 함수에 대한 해석이 어려우며(이하늬, 2017), 2차 함수를 적용한 선행연구의 경우 대부분 사회·인구학적 요인과의 영향을 본 연구들로 어떠한 활동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동태적 결과를 보기에는 한계(김진원, 이금룡, 2010)가 있어 사용하지 못하였다.

셋째, 본 연구는 한국고령화패널(KLoSA)를 활용하였기 때문에 2차 자료의 특성상 척도의 신뢰성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 참고문헌

- 강유진(2015). 부부 단독가구 노인의 가사분담, 평등감, 의사소통이 부부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의사소통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26(2), 361-374.
- 강은나(2016). 고령사회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정책과 함의. *보건복지포럼*, 232, 29.
- 고보선, 유용식(2004). 노인학대 유형별 대처전략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23, 83-105.
- 권오균(2008). 장애노인의 삶의 질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39(39), 7-31.
- 김계수(2017). 잠재성장모델링과 구조방정식 모델 분석. 서울: 한나래출판사.
- 김계수, 송태민(2012). 구조방정식모형을 이용한 한국복지패널 활용방안: 교차타당성과 자기회귀교차지연 모형을 중심으로. *보건복지포럼*, 187, 61.
- 김미령(2006). 전기, 후기 여성노인의 삶의 질 및

- 영향요인 비교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8(2), 197-222.
- 김미숙, 박민정(2000). 종교가 노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국노년학**, 20(2), 29-47.
- 김미혜, 남순현(2014). 베이비부머의 여가중심 라이프스타일, 은퇴준비 및 부부 여가활동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 34(1), 183-203.
- 김숙경(2004). 농촌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미치는 요인. **노인복지연구**, (23), 179-202.
- 김익기, 김동배, 모선희, 박경숙, 조성남(1999). **한국 노인의 삶 :진단과 전망**. 서울: 미래인력연구센터 :생각의 나무.
- 김자영(2019). 고령 장애인의 빈곤과 우울감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의 매개 효과 검증. **보건사회연구**, 39(3), 148-178.
- 김주환, 김민규, 홍세희(2009).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논문쓰기.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김진원(2020). 노인의 여가활동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을 활용한 종단분석-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상명대학교 대학원.
- 김진원, 이금룡(2020). 노인의 여행 및 관광활동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종단연구. **관광레저연구**, 32(7), 49-68.
- 김춘옥(2015). 노인의 여가몰입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한국복지실천학회지**, 6(2), 78-99.
- 김태현, 김양호, 임선영(2011). **노인복지론**. 서울: 구상.
- 김희경, 이현주, 박순미(2010). 여성독거노인의 삶의 질 영향요인. **한국노년학**, 30(2), 279-292.
- 문화체육관광부(2019). 2019 국민여가활동조사.
- 민경선(2020). 노인의 여가생활 특성과 여가자원이 여가생활만족도 및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가구형태에 따른 차이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44(3), 45~57.
- 민경진, 황진수(2007). 노인의 일상생활활동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연구. **노인복지연구**, (36), 223-248.
- 박기남(2004). 노년기 삶의 만족도의 성별(Gender) 차이.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2004(6), 111-118.
- 배종욱(2010). 노인들의 건강상태에 따른 신체기능 및 건강관련 삶의 질과의 관계. **한국보건복지융합연구(구 노인의료복지연구)**, 1(1), 149.
- 보건복지부 (2018). 2017년도 노인실태조사.
- 신동관, 한영호(2011). 노인공동주거시설의 공용공간 특성에 관한 연구 -노인 여가활동 유형 중심으로. **한국공간디자인학회 논문집**, 6(1), 31-41.
- 신학진(2010). 노인의 차별경험이 자아통합감을 매개로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 30(2), 551-565.
- 오창석(2012). 노인의 주관적 건강 인식과 삶의 질이 우울과 자살 생각에 미치는 영향. **보건의료산업학회지**, 6(2), 179-191.
- 이금룡, 강은경, 박준기, 구재관, 조봉실, 이기백, 박상욱(2009). **노인자원봉사실천론 = Volunteer management**. 서울: 학지사.
- 이금룡, 박상욱, 유은경(2013). 노년기 생성감과 생활만족도와와의 관계에서 자아통합감의 매개효과에 관한 연구: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노인들을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33(2), 365-379.
- 이금룡, 홍성태, 이윤경(2004).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중년층의 인터넷 사용 행태 : 미래 노인계층의 인터넷 활성화를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24), 215-237.
- 이하니(2017). *Genetic and functional dissection of the hippo pathway in caenorhabditis elegans*.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이현지(2014). 동거유형에 따른 재가 노인의 사회

- 활동이 삶의 만족도와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한국지역사회복지학**, 48(-), 269-290.
- 이형룡, 이해영, 이금룡(2008). 노년기 여가활동과 라이프스타일이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탐색적 연구. **호텔경영학연구**, 17(2), 149-165.
- 임광빈(2018). 주거특성이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 임승희, 노승현(2011). 노인의 주관적 삶의 질 모형 연구: 죽음불안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31(1), 1-14.
- 전영갑, 이재근(2006). 노인의 여가활동과 생활만족도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 노인여가복지시설 이용자를 대상으로. **임상사회사업연구**, 3(3), 243-272.
- 정경희(2018). 노인의 가족 현황과 전망. **보건복지포럼**, 264, 6.
- 정순돌(2003). 저소득 노인의 가족동거여부와 삶의 만족도. **한국가족복지학**, 11, 59.
- 조경옥, 이동기, 이중섭(2011). 100세 시대 도래, 노인의 삶의 질 준비 필요하다. **전북발전연구원**.
- 조순점, 최명옥(2013). 노인의 여가문화와 삶의 질의 방향성에 관한 연구. **21세기사회복지연구**, 10(1), 67-91.
- 주경희(2011). 노인의 사회참여 활동영역과 수준에 따른 삶의 질 비교연구 - 객관적 및 주관적 삶의 질을 중심으로 -. **한국지역사회복지학**, 0(39), 231-264.
- 주민경, 송선희(2012). 노인들의 여가활동 참여여부와 활동유형에 따른 성공적 노화 지각차이 분석. **사회과학연구**, 31(1), 135-155.
- 최용민, 이상주(2003). 사회적 지원망이 독거노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노인복지연구**, 22, 193-217.
- 최현식, 하정철(2012). 노인의 삶의 질과 삶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지**, 23(3), 559-568.
- 통계청(2018). **고령자 통계**.
- 통계청. **장래가구추계 2018~2047**.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8). **고령층 국내관광 활성화 방안 연구**.
- 한상미(2011). 노인의 사회적 여가활동과 생활만족도 -여가만족과 고독감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42(3), 157.
- 허준수(2002). 도시노인의 여가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22(2), 227-247.
- 허준수(2004). 지역사회거주 노인들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24, 127-151.
- 홍세희(2000). 구조 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19(1), 161-177.
- Arbuckle, J. L. (1996). *Full information estimation in the presence of incomplete data*. In G. A. Marcoulides & R. E. Schumacker (Eds.), *Advance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ssues and techniques*. Mahwah, NJ: Lawrence Erlbaum.
- Atchley, R. C. (1975). Adjustment to loss of job at retirement.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 Human Development**, 6(1), 17-27.
- BLI, OECD(2017). *Better life Index-Edition 2017*. <http://stats.oecd.org>
- DeCarlo, T. J. (1974). Recreation participation patterns and successful aging. **Journal of Gerontology**, 29(4), 416-422.
- Duncan, B. (1999). Modeling charitable donations of time and money. **Journal of Public Economics** 72(2): 213-242.
- Duncan, T. E., & Duncan, S. C.(2004). An introduction to latent variable growth curve modeling. **Behavior Theory**, 35, 333-363.

- Gabriel, Z., & Bowling, A. (2004). Quality of life from the perspectives of older people. *Ageing & Society, 24*, 675–691.
- Havighurst, R. J. (1961). Successful ageing. *The Gerontologist, 1* : 8–13.
- Hooyman, N. R., and Kiyak, H. A. (2011). *Social Gerontology: A Multidisciplinary Perspective*(9th Ed). Boston, MA: Allyn and Bacon.
- Kline, R. B. (2005).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2nd ed). New York, NY: Guilford Publications.
- Meredith, W., &Tisak, J. (1990). Latent curve analysis. *Psychometrika, 55*(1), 107–122.
- Neugarten, B., Havighurst, B. J., and Tobin, S. S.(1968), *Personality and patterns of aging*, In B. L. Neugarten(ed.), Middle age and aging, Chicago :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Tinsley, H. E. A., Tinsley, H. E. A., Tinsley, H. E. A., Colbs, S. L., &Colbs, S. L. (1987). The relationship of age, gender, health and economic status to the psychological benefits older persons report from participation in leisure activities. *Leisure Sciences, 9*(1), 53–65.